



# energy snapshot

Analyst. 손 지 우 / 3773-8827, jwshon@sk.com

## 사우디 피폭 이후 “정유 제자리, 화학은 온기 지속”

- ▶ 유가 정상화와 함께 정유의 정제마진은 빠르게 원래 수준으로 회귀. 다만 화학은 PE/MEG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 지속되고 있음. 납사 상대적 강세와 short-covering 때문이겠지만 단기호재로서 주가에는 긍정적 작용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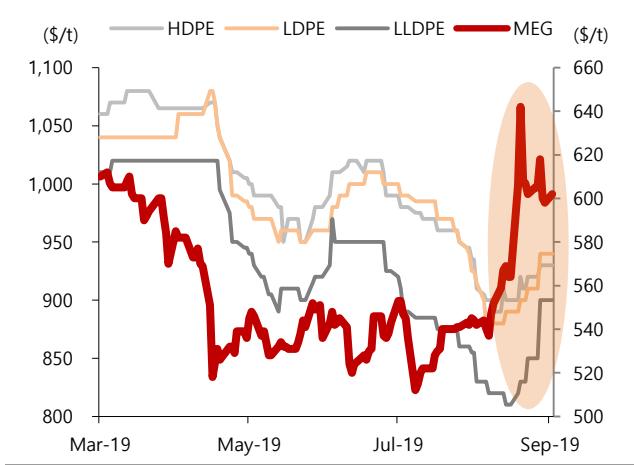
### 유가/정제마진은 사우디 피폭 이전 수준으로 회귀 중



- 2주 전 발생했던 사우디 피폭 사태에서 유가와 관련된 부분은 말씀 드린 대로 빠르게 진정되고 있습니다. 사우디가 3주 내에 시설복구를 이루느냐가 관건이라 했는데, 그렇게 진행되면서 유가는 사실상 이전 수준으로 회귀된 상황입니다

- WTI는 9/30 기준 \$54.1/bbl을 기록해 9/13 \$54.9/bbl (피폭 이전유가) 보다 오히려 낮아졌고, Dubai는 아직 \$60.9/bbl로서 9/13 \$58.4/bbl보다 높긴 하지만, 추세를 보면 조만간 역시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예상됩니다
- 동반하여 급등했던 경제마진 또한 제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
- 이렇게 된다면 정유업체의 9월 실적에 일부 호재로서는 분명히 작용하겠지만, 이익 방향성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이 확인이 되네요

### 하지만 석유화학은 온기가 지속되는 중



- 하지만 화학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. 대표제품이 피폭 사태에 따른 급반등 이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 중입니다
- \$500/t를 지키는 것도 버거워 보이던 MEG는 \$600/t를 지속 상회하고 있고, 미국 물량 부담에 계속 하락하던 PE 제품군들도 \$50~100/t의 반등세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
- 놀라운 것은 중국 MEG 재고인데, 전주 65.6만톤까지 하락하여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. 적정재고수준보다 낮은 수치이기도 하구요. 그와 함께 이뤄진 반등이라 간과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
-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 석유제품 중에서도 화학 원재료인 납사가 9/13 \$50.7/bbl → 9/30 \$55.7/bbl로서 제일 강세입니다. 이와 동반해 화학 제품가격이 안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. 동시에 중국 트레이더들은 일시적 short-covering이라 치부하기도 하구요
- 아마도 장기 공급과잉 사태를 감안할 때 길게 가지는 않겠지만, 주가가 많이 빠졌던 화학에게 단기 호재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

-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건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